

# 성서의 기호학적 접근

—성서 다시 읽기

서 인 석

## 1. 들어가는 말

어떻게 기호학적 독서의 원칙을 쉽게 또 빠르게 소개하고, 기호학이 텍스트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이 글을 통해 제시할 것인가? 기호학의 이론에 대한 상세하고도 풍부한 설명만으로는 이 나이 젊은 학문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이라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미 작용의 시스템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시각을 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좀 두렵기도 한 기호학의 전문 술어 *métalangage*는 텍스트의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적절히 설명될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의 실천이 어느 특정 전문 술어가 노리는 바를 알아보도록 할 때에 그 용도를 설명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된 기호학적 분석의 몇 가지 원칙은 3~4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자들로 구성된 성서 모임의 그룹이 토론 체험을 통해서, 성서 텍스트를 읽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시도한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원칙들을 텍스트 분석과 해석의 실천에 적용시켜봄으로써, 우리가 신구약 성서 전체의 텍스트를 읽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

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것은 선정한 텍스트를 총괄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읽어보는 독서의 실행이다.

### I.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모두는 걸거나 자전거 타기를 배우듯이 어릴 적부터 읽는 것을 배워왔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종류의 텍스트를 읽고 있지만, 사실 이 독서라는 행위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에 관해 언제나 의식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성서를 읽는 행위는 2천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실천해 온 일이다.

아마도 우리가 읽고 있을 때,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특히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적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텍스트 안에서 의미가 도래하고 또한 파악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독서 행위의 몇 가지 규칙을, 말하자면 다소의 방법론을 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3~10명의 독자들로 구성된 그룹을 지어 성서를 읽을 때, 이 방법론은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2. 텍스트를 읽다.

### I. 읽어야 할 것은 텍스트 그 자체이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어 있는 성서 텍스트 중 일부를 부정확하거나 모순적이며 꺼칠꺼칠하다는 이유로 가감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le texte tel quel* 읽어야 하는 텍스트 그 자체이다.

이 같은 단언은 실상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 읽는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여러 가지로 방법론적인 선택을 전제하고 있다. 실상 우리가 많은 종류의 텍스트를 접하면서도 독자로서의 첫 반사 작용은 텍스트에서 모종의 정보, 곧 지식을 얻고자 하는 데 있으니, 그 지식은 우선적으로 텍스트를 통해 묘사된 실재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텍스트를 쓴 저자의 사상과 의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신문·잡지·편지·상품의 사용법 안내서 등을 읽고 있다. 이 같은 독서 행위는 실천적이긴 하지만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한 독서 행위 *une lecture documentaire* 일 뿐이다. 사람들은 텍스트에서 무엇을 알아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 그리고 일단 텍스트를 읽고 난 뒤에, 우리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하면 그 텍스트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그러나 성서 텍스트는 문학 작품 중의 어떤 텍스트처럼 한번 읽고 난 뒤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텍스트가 아니다. 성서 텍스트들은 읽고 또 읽어도 그 의미가 소진되지 않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그 텍스트의 세상 혹은 저자들에 관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정보로만 처리되어 환원시킬 수가 없다. 성서 텍스트는 엄격히 말해 말쑥의 기념비적인 존재 *monuments de la parole*로서의 텍스트이다. 누가 감히 성서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성서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역사)에 도달하기 위하여 혹은 성서가 전달하는 의도를 포착하기 위해 성서 텍스트를 건너뛰듯이 읽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 자체와 독자 자신이 뒤엉켜 씨름을 하는 것이요, 또한 텍스트 안에서 그 꼴을 갖추고 있는 말쑥에 의해서 독자 자신이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 자체 안에 담론 배치 *la mise en discours* 되어 있는 각

요소들을 서로 연결시켜보는 것이요, 또한 여타의 고전 문학 텍스트들과, 그리고 말씀이 그 꼴을 갖추는 그와 다른 표현 방식들에 연결을 시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읽어야 할 것은 텍스트 그 자체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텍스트의 그 언어적 질료성 안에서, 텍스트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고 듣는 것(경청하는 일)이다. 이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1) 텍스트의 언어적 자료는 어떤 종류의 행위자들 행동들 시간적 요소들 그리고 장소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는가?

2) 텍스트의 언어적 자료는 행위자들간의 각 실존과 이들이 하는 행동들간에 어떤 대립 요소들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이때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읽어 치워버리기식의 속독(텍스트의 자명한 의미를 대충 빨리 읽어내려가는 독서, 독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면 즉시 중단해버리는 그런 독서를 지적함)의 움직임을 중단하고, 좀더 느리고 힘든 작업을 전제하는 정독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독의 길이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텍스트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언어라는 골재를 사용하여 텍스트가 어떻게 의미를 구축하며 또 생산하고 있는가를 세밀히 관찰하는 독서의 방법을 지적한다. 무릇 읽는다는 것은 의미의 단위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다.

우리는 성서의 구체적인 한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가?' (텍스트의 내용과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텍스트라는 공간 안에서 메아리치는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

### 3. 정독의 길

#### 1. 담론 분석과 그 규칙들

무릇 모든 텍스트란 언어라는 골재를 사용하여 구축한 일종의 '건축물'이다.

그러므로 독서라는 행위는 이 건축물 안으로 진입하여 의미의 길들과 그 뼈대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추적해보는 것을 지적한다.

언어란 우리 모두가 국민학교에서부터 배워온 문법과 어휘들이다. 단어들이 있고 문장들이 있으며 주어·동사·보어 등이 있으니, 또 사전은 단어들의 뜻을 분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정독의 길은 문법과 어휘들을 문제삼고 있지 않다. 우리는 텍스트가 자기에게 고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합하며 결합시키려는바 함께 어울리게 하는 단어들을 식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한 텍스트 안에서 언표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행보들 *les parcours* 안에 구체적으로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그 행보들이 각 단어들의 실제적인 의미들을 가차없이 선정하여 결정한다(발언 배치의 원칙 *le principe d'énonciation*). 가령 아래의 문장들이 그 좋은 예들이다.

가) 그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다.

나) 그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다.

다) 그 나병 환자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독자는 이 예문들에서 각 문장에 따라 그 사항의 의미 작용이 변화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나병 환자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의 행보에 따라 이해되고 있다.

- 가) 첫째 문장에서 그는 나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파악된다.
- 나) 둘째 문장에서 그는 '부정(不淨)한 자'로 파악된다.
- 다) 셋째 문장에서 그는 '소외된 자'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독서라는 행위는 텍스트의 표현과 단어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상의 행보들을 추적하는 것을 지적한다. 독서는 텍스트의 언어 속에 나타나는 이 행보들의 놀이를 추적하는 행위이다.

기호학은 '텍스트의 언어'를 담론 *discours*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행보들의 놀이'에 대한 분석을 담론 분석 *analyse discursive*이라 부른다.

#### 1) 첫째 단계

텍스트를 처음 읽어볼 때, 그것은 각기 그 가능한 의미들과 함께 나타나는 수많은 단어의 무리로 파악되고 있으니 일종의 '처녀림'과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어떻게 이 숲속에서 길을 가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발견하고 또한 의미의 행보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 거기에는 인물들·행동들·객체들·장소들·수식사(修飾詞)들 등 수많은 요소가 배치되어 있다.

#### 2) 둘째 단계

이 언어의 숲속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텍스트 속에 배치된 이 모든 요소를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첫번째의 분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 가) 행위자들: 행동의 주체들 *acteurs*
- 나) 시간의 순간들 *temps*
- 다) 장소들 *lieux*

이 세 가지 원칙은 텍스트 안에서 장면들 *scènes*을 구성하게 하고,

또 그 장면들 사이를 서로 구분하게 한다.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행위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형성하면서 텍스트 속에 자리를 잡는다. 기호학은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장면들을 담은 상황들 *situations discursives*이라고 부른다. 다음의 예문들은 담은 상황의 한 가지 예문이다.

라) 예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 안에 있었는데 그때 폭풍은 기세를 올렸다.

그런데 만일 텍스트가 행위자·시간 그리고 장소를 바꾼다면, 이제 새로운 한 장면이 나타난다. 이것은 '연극의 장면 전환'의 현상과도 비슷하다.

마) 예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배 안에 있었는데 그때 폭풍은 잠잠해졌다. 제자들은 예수가 없이 배 안에 있었는데 그때 폭풍은 기세를 올렸다.

### 3) 셋째 단계

이제 독자는 텍스트 안에 여러 개의 장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장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장면으로 옮겨갈 때, 장소·시간·행위자 등의 정의 안에서 무엇이 변경되고 있는가? 이 장면 전환의 현상 안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차이 *la différence*'를 발견하고 또 그 차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텍스트의 독서 행위에서 이 셋째 단계는 대단히 중대하다.

가) 예문: 예수에 의해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은 텍스트 안에서 믿음의 문제를 제기했고 또 예수와 제자들간에 새로운 한 관계를 나타내게 한다. (「마르코」 4: 35~41; 「마태」 8: 18, 23~27; 「눅」 8:

22~25 참조).

(1)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이 단락 안에서 무엇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이를 발견한다' 함은 텍스트가 어떤 시각하에 자기의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들 중 어떤 인물들에 집착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기초 위에 그들을 서로 비교하고 분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가) 어제 홍길동은 부자였다/오늘 홍길동은 빈자(貧者)이다.

나) 홍부는 키가 크다/놀부는 키가 작다.

여기서 차이들은 '어떤 시각' (혹은 臺帳들 혹은 범주들)하에 행위자들이 고려되었고(경제적인 범주와 육체적인 신장[身長]의 범주), 또한 어떤 기초 위에 그들을 분류하고 있는가를 나타나게 한다.

유의 사항은 흔히 독자들은 복음서들 안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각 텍스트가 매번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그 인물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판독하기 위해서 그 시각의 독특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으면 복음서의 모든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예수라는 인물뿐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안에서의 차이들에 대한 세밀한 관찰은 바로 이 정확한 의미의 규명에 언제나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언제나 텍스트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배 안에 있는 예수에 관해서 잠과 말썽에만 유의하게 되고 또 바다에 관해서는 폭풍의 기세와 침묵하는 바다의 면모에만 정신을 쏟을 것이다.



(2)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의 조직 *organisation du sens*을 파헤쳐보는 것을 지적한다. 하나의 경치, 그림의 한 화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을 알아보고, 또 읽으며,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형태와 색깔 그리고 양과 질 등에서 차이들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이성은 우리가 인식하는 의미의 기초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의미가 없다는 것 *pas de différences = pas de sens*과 등식을 이룬다(밤에는 모든 고양이들의 털 색깔이 회색 빛깔이다).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독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미의 행보들간의 대립·편차·차이들에 대한 인지와 묘사 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독서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큰 학문이나 이론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상의 조절이 독자에게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 4) 넷째 단계

독자는 텍스트의 장면들간에서 변화된 것을 알아차리고 차이들을 평가하게 된다. 이 사실은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요소들을 분류하도록 *classer*한다. 분류의 대상은 모종의 시각에서 함께 어울리는 행위자들(인물들·객체들 등등)·시간들·장소들의 요소들, 혹은 모종의 시각에서 서로 구별되는 것들(키가 큰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말을 하는 이들, 침묵을 지키는 자들, 믿는 이들, 항의하는 자들 등등)이다. 독자는 이 모든 요소를 분류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는 이 분류 작업에서 무엇이 함께 어울리고 또 무엇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하며, 또한 분류의 원칙들 곧 범주들 *catégories*을 알아보아야 한다. 기호학은 이 같은 분류 작업을 텍스트의 주제 분석 *analyse thématique*이라고 부른다.

이리하여 독자는 좀더 심층적으로 텍스트의 이해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는 우리가 표상을 할 수 있는(이것은 바로

텍스트의 형상적 차원 *dimension figurative*에 속한다) 장면들(예를 들면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는 예수, 밭에 씨를 심기 위해 떠나는 파종자, 길가의 소경)을 배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텍스트는 이 모든 형상적 요소(이것은 바로 텍스트의 주제적 차원 *dimension thématique*에 속한다)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조직하고' 또 '분류하고' 있다.

이 점은 텍스트들을 읽는 행위 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원칙에 속한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들이 하나의 세상을 표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면 제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세상, 혹은 바울로 시대의 고린토 공동체의 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실천해온 바대로의 독서 행위가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 곧 모종의 가치들의 기초 위에 그 텍스트들이 한 세상을 조직하고 또 구축하고 있다는 확신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독서 행위는 정독의 길이 요구하는 바 그 규칙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독서 행위의 초점을 정리해보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도식들과 텍스트의 의미 조직의 모델들을 설정하여, 텍스트 그 자체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 II. 독서 행위와 그 규칙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은 축구 시합을 관람하는 한 관객의 체험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처음에 그는 많은 선수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을 움직이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관객은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행위자들(선수들)의 정해진 모종의 행보들, 그들간의 전략적인 모종의 결합들, 쌍방간에 발생하는 모종의 대립들을 관찰하게 된다. 이 같은 현상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다. 그는 이 행보·결합·대립들을 분류해봄으로써 자기가 관람하고 있는 축구 시합의 규칙 혹은 전략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를 눈앞에 둔 독자는 축구 시합 관람의 체험과 비슷한 경험

을 하게 된다. 독자는 자기가 읽고 있는 텍스트의 규칙을 당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독자가 그 규칙을 일단 발견하게 되면 규칙의 놀이가 매우 아름답다고 느낄 것이며 자기도 모르게 그 놀이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보게 되는 것이다.

## 4. 역할들의 놀이

### I. 설화 분석과 그 규칙들

무릇 텍스트란 언어를 골재로 삼아 지은 건축물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단계에 걸쳐 '독서의 길'을 개척했으니, 이 길은 바로 그 건축물을 조직하는 규칙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러나 무릇 "모든 텍스트는 이야기한다! *Mais tout texte raconte!*" 모든 텍스트는 흔히 설화 *récit*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해서도 이미 언급한 담론의 차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바 그 규칙을 발견해야 한다. 기호학은 여기서 텍스트의 설화 구성 *la composante narrative*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텍스트 안에서 '변형들 *transformations*'이 발생할 때 '이야기'가 성립한다.

조금 앞서 우리는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관찰해보았다. 장면들간의 이 차이들은 행위자들에게 변형의 자리 곧 한 이야기의 '내기'가 될 수 있다.

가) 바다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에게(죽음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나) (예수에 의해) 잠잠해진 바다는 승객들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다.

가)와 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이제 변형이 발생했으므로 하나의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그것은 예수에 의해 잠잠해진 폭풍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초장(初場) 상태 *un état initial A* 와 하나의 종장 상태 *un état final B* 와 그리고 (한 명의 작용 주체 *sujet opérateur* 에 의해) 실현된 변형의 한 '작용 *opération*' 이 요구된다.

이 핵심적인 변형의 작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에서 하나의 설화 프로그램 *un programme narratif* 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성하는 다음의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가) 조종 *manipulation*(하게 하다, 사역 행위 *faire-faire*)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은 변형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명의 영웅(주역으로서의 작용 주체)을 찾으며 또 그들은 영웅으로 하여금 이 과업을 수락(원하다 *vouloir*)하도록 설득 작업을 편다.

나) 권태 *compétence*(할 능력이 있다 *pouvoir-faire*)

만일 첫 단계(영웅은 실행을 원하고 있다)가 실현되었다면, 사람들은 영웅으로 하여금 권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말하자면 영웅은 변형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다) 실행 *performance*(하다 *faire*)

만일 권능(영웅은 할 능력이 있다)이 취득되었다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로 변형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이 변형은 초장의 상황을 변형된(종장의) 상황으로 옮겨가게 한다.

라) 비준 *sanction*(평가 *évaluation*)

일단 실행이 성취되면 영웅은 그에게 변형을 하게 한 자들(발신자들)에 의해 인정 *reconnu*(비준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영웅에게 이 단계는 진리의 시련 *épreuve de vérité* 을 의미한다.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마치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에서 입력을 하는 사람은 한 단계가 실현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도 비슷하다)이다.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의 행위자들이 이야기 안에서 활약하는 것과 행동 안에서의 그들의 기능들에 해당하는 역할들 *les rôles*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이 같은 분석 방식은 행위자들을 분류하는 것이요 그들간의 차이들을 재발견하고 지적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야기의 주된 변형은 흔히 적대자들과 함께 '대결 *affrontement*'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각 **설화 프로그램** 앞에는 보통으로 반프로그램 *anti-programme*이 있게 마련인데, 후자는 전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작용을 방해하거나 철회할 것을 시도한다. 프로그램과 반(反)프로그램의 대결은 쌍방간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한다.

독자는 성서의 이야기에서나 혹은 민담이나 대중적 콩트들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설화 조직**의 표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깊은 숲속에서 어느 무시무시한 용의 포로가 된 공주를 찾아와야 하는 영웅은 마술적인 모종의 객체로 무장한 뒤 공주를 용으로부터 빼앗아 왕의 궁정으로 그녀를 무사히 데리고 온다. 그때 영웅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왕은 공주의 생환을 기뻐하며 축제를 베푼다. 그리고 왕은 이 잔치에서 자기 왕국의 반을 영웅에게 영토로 주고 또 공주는 영웅의 왕비가 된다.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들 안에서 이야기의 형식을 다시 발견한다는 것은 차이들을 드러나게 하고 또 텍스트의 요소들(행위자들·객체들·행동들)을 이야기 안에서 그것들의 기능(의미 작용)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을 뜻하고 있다.

우리가 시도하는 독서의 계획은 텍스트의 의미 작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혹은 길을 제안하고 있다.

가) 답론 분석: 이 분석은 장면들과 의미의 행보들에서 출발하여 차이들을 관찰하고 분류한다.

나) 설화 분석: 이 분석은 설화 안에서 행위자들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차이들을 관찰하고 분류한다.

그러나 이 두 접근의 길은 동일한 원칙에 순종하고 있다.

가) 독서 행위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텍스트 그 자체로부터 수집해야 한다.

나) 독서 작업을 인도하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차이들에 대한 관찰과 분류이다.

## Ⅱ.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가?

제안된 독서의 행보는 한걸음 한걸음씩 전진하는 독서의 길잡이로서 얼른 보기에 지루해서 싫증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많은 독자들이 아주 빨리 익숙해지고 흥미있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독서 작업의 길은 여러 가지로 이점을 지니고 있다.

### 1) 성서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주의력 집중

우리가 제안한 대로 텍스트를 읽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텍스트를 성서 *écriture* (인간의 말로 문자화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로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성서의 텍스트는 단순히 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보로 환원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2) 텍스트 그 자체에 대한 주의력 집중

텍스트는 독서 행위의 가장 특전받은 대상이다. 그리고 텍스트는 세상과 행위자들의 심리·아이디어 들의 역사에 대한 고려(때때로 그 고려가 흥미롭지만)의 핑계 *prétexte*가 될 수는 없다. 독자가 읽고 있는 텍스트는 지식과 정보를 과시하거나 축적하는 기회가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말하여진 것의 자리 그 자체이며, 또한 우리는 그 말해진 것을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 행위는 텍스트의 메시지에 대한 지식을 단순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가 아닌 것이다.

### 3) 의미의 조직에 대한 주의력 집중

읽는다는 것은 텍스트가 어떻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자기의 정보 곧 자신의 언어를 어떻게 분류하고 배치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성서 텍스트는 우리의 고유한 언어 체계와 말을 하는 방식, 삶과 죽음, 사랑과 진리 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도전하며 말을 건네오는 데 힘이 있는 그 무엇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성서의 텍스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서 텍스트 그 자체가 먼저 우리의 실존 방식과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성서를 읽는 독서 행위에는 그 끝이 없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다.”

## 5. 분석 속으로 진입하라!

### I. 슬기로운 청지기의 비유: 텍스트(「눅」 16: 1~8)

1)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청지기를 두었다. 그는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고발을 듣고, 2) 그를 불러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제부터 자네는 청지기 노릇을 못할 터인즉 자네가 해온 청지기 일을 청산하게” 하고 그에게 말했다, 3) 그러자 청지기는 속으로 말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일을 떼려 하니 어떻게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4) 옹지, 알았다. 내가 청지기 일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에 맞아들이게 해야지.”

5)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빛진 이들을 하나씩 불렀다. 그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빛이 얼마요?” 하자, 6) 그는 “기름 백 달이오” 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당신의 빛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앉아서 어서 쉰 말로 적으시오” 하였다, 7)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 빛은 얼마요?” 하자 그는 “밀 백 섬이오” 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당신의 빛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여든 섬으로 적으시오” 하였다, 8)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가 슬기롭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네끼리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슬기롭기 때문이다.

## 6. 담론적 측면에서의 고찰

### I. 행위자들을 알아보라

이 짧은 비유 이야기는 여러 명의 행위자를 무대 위에 연출시키고 있으니, 이들은 이야기된 행동 안에서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등장 인물들이며, 또한 이들의 모습을 들추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독자는 3명의 행위자를 지적하게 되니, 첫째, 어떤 부자 사람(남성), 둘째, 청지기, 셋째, 사람들이다.

그리고 독자는 비유 이야기가 이 행위자들간의 상호 관계들과 또 관계들 속에서 그 행위자들이 서로간에 유지하게 될 역할들에서 출발하여 조직되고 있음을 예견하게 된다.

### II. 행위자들을 묘사하라

텍스트는 행위자들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수식하고 묘사하며 또 그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가는 텍스트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들에 소상히 유의하면



서, 텍스트 안에서, 행위자들을 '정의하는 내용'을 찾아보아야 한다.

1)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그의 재산과 청지기와와의 관계 속에서 권위의 신분을 가진 남자로 정의되고 있다. 그는 한편으로 청지기에게 재산 관리를 청산해보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청지기 노릇을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청지기: 누구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 때문에 고발된 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 낭비의 활동이 무엇인지 달리 밝히지 않는다.

주인의 명령으로 인한 결과에 따라(재산 관리에 대한 청산+청지기 역할의 중단), 청지기는 여러 가지로 가능한 활동이 기재되는 시간과 우선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이 활동들 중에서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청지기가 거부한다. '땅을 파는 일'은 능력-행위 *pouvoir-faire*의 문제로 인해 거절당하고, 빌어먹는 일은 사회적인 점(창피)의 문제로 인해 거절당한다.

그 다음 청지기는 공간과 연관을 맺을 것이다(그에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일에서 해고당한 후 자기를 맞이할 장소를 찾는 일이다).

5절을 출발점으로 하여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좀더 정확하게 행위자 청지기의 특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청지기와 주인의 채무자들간에 설정되는 그 관계의 방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3) 먼저 청지기와 채무자들 각자 간에 대화가 있다.

4) 채무자 각자에게는 청지기의 주인(자기의 주인에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5) 그 중 한 명을 위해서, 청지기는 100에서 50으로, 다른 한 명을 위해서 100에서 80으로 빚의 액수를 감소시켜준다(관련되어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밀과 기름이다).

6) 청지기는 또 빚진 사람 각자에게 빚 문서를 주어 거기에다 채무

자의 빛 액수를 기재하도록 한다. 따라서 채무자 각자를 위해서 그가 말한 것(5~6절)과 그가 쓴 것(6~7절)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차이는 청지기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으니, 청지기는 재산 관리를 청산하는 마당에(2절에서 그에게 재산 관리의 청산이 요구되었었다) 그 액수를 채무자들로 하여금 빚문서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7) 씌어진 빛과 말하여진 빛(씌어지지 않은 빛) 사이에 편차를 생겨나게 함으로써 자기의 장래(해고당한 후에 자기를 맞이해줄 공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8절을 출발점으로 하여, 텍스트는 청지기에 관련되는 가치 판단(이 판단은 텍스트의 피날레에 가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관련시켜 다시 언급이 될 것이다)을 내리는 주인을 다시 무대에 등장시키고 있다.

8) 청지기는 그의 민첩한 처신 때문에 주인에 의해 슬기로운 자로 판단된다.

9) 이 민첩함은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도 있음이 인정된다.

행위자들을 소상히 관찰하는 이 과정은 텍스트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민감한 주의깊은 독서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텍스트가 자기의 행위자들을 취급하는 그 방식에 주의력을 기울이는 독서를 이 과정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텍스트는 어느 관계들 안에서와 어떠한 의미 작용의 대장(臺帳)들상에 자기의 행위자들을 분절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 이 첫 관찰은, 어떤 시각하에 텍스트의 요소들이 선택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미 행위자들의 '분류'에 관한 가설을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 Ⅲ. 이야기의 강조점을 찾아서

우리의 첫 관찰은 조금 지나치게 점묘법처럼 소상했으나, 텍스트의 요소들이 나타남에 따라 그것들을 차례대로 들추어냈을 뿐이다. 이제 그 모든 요소가 어떻게 서로 분절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독자가 분석의 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텍스트 안에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서로 응답하는 의미 작용의 요소들을 탐색할 수가 있다.

독자는 청지기가 채무자들과의 빚 처리를 통해 일종의 분배 활동(한 사람씩 호출된 채무자들)과 조직 활동(이 조직 활동은 빚의 액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4~6절의 분석에서 이미 묘사한 것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은 아마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청지기에 가한 고발에 응답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낭비라는 이 형상이 재물의 분산, 돈 뿌리기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을지라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사실 고발당한 것은 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하거나 횡령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또 비유 안에서 주인에 의해 내려진 판단이 두 가지라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첫 판단은 뜬소문에서 출발하여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판단은 주인 자신이 자발적으로 청지기의 민첩함을 인정하기 위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독자는 서로 응답하는 이 요소들 외에도, 한편으로는 낭비와 다른 한편으로는 민첩한 슬기 사이의 대립을 분절시키고 있는 의미 작용의 한 행보를 가정해볼 수 있다. 만일 독자가 텍스트를 믿는다면, 민첩한 슬기로움은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자들과 이들이 진 빚에 대한 약삭빠른 처리에 해당된다. 낭비는 청지기가 결국 하지 않을 것에 해당되니, 그는 땅을 파거나 빌어먹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독자가 다음의 두 사항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용을 조직한다면.

#### Ⅳ. 낭비 대 민첩한 슬기

위의 대립에 상응하는 두 가지 재산 경영 방식을 서로 대립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청지기가 행하기를 거절하는 일(빌어먹는 것과 땅을 파는 것)과 실제로 그가 행한 일(주인의 빚을 처리한 것)을 서로 대립

시켜야 한다. 그 두 가지 일은 주인의 재산을 경영하고 처리하는 두 개의 대립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는 이 텍스트의 의미 작용의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한 가설을 내세울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모델은 텍스트의 요소들(여기서는 청지기의 활동들에 해당됨)을 분류할 수 있는 논리적 조직을 의미하며, 또한 이 분류를 기초로 하여 그 요소들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질문은 “무엇으로 땅을 파고 빌어먹는 일이 청지기에 따른 ‘빛처리’에 서로 대립하는가?”이다.

만일 독자가 빛을 처리하는 일을 좀더 소상히 분석하려면, 앞서 관찰한 것을 다시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채무자를 통해 말하여진 빛과 빛문서에 쓴 빛간의 편차와, 한편으로는 채무자들이 주인과 맺는 관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지기와 맺는 관계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때 독자는 청지기의 실천 방식이 하나의 유일한 빛에서 출발하여 두 가지 빛을 청산하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1) 먼저 주인에 대한 채무자들의 빛에 관한 인정으로서, 빛문서에 씌어진 빛이 있다. 이 빛은 갚아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지만(130%), 주인은 추후에 그 남아 있는 빛을 모조리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 그 다음 여기에는 ‘말하여진 빛’ 과의 편차(70%)가 존재한다. 이 편차는 비록 청지기가 구두로 표명한 것이지만 청지기에 대해(그리고 주인에 대해) 채무자들이 인정하는 한 빛을 창출한다.

따라서 약고 슬기로운 청지기의 활동은 행위자들간의 관계들을 변경시킨다.

3) 청지기와 그 주인(8절에서 그 주인은 ‘주님’으로 명칭이 바뀐다)간의 관계

4) 채무자들과 주인과의 관계

5) 어떤 사람 채무자들과 청지기의 관계

이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난 셈이다. 슬기롭고 재치있는 경영은 여  
기서 땅을 파는 일과 빌어먹는 일의 형상으로 묘사된 낭비에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의 내기는 생산적인 활동(농사 일) 혹은  
거지 노릇을 통한 재산과의 직접적인 한 관계와 빚의 이중화를 통해  
나타난 계약적 관계들과 연계한 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한 관계 간의  
대립 선상에 배치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청지기는 계약적 관계들의  
다변화를 실현한 것이다.

## 7. 설화적 측면에 대한 고찰

우리는 지금까지 행위자들을 위해 텍스트가 선정한 언어의 특성들  
에서 출발하여 의미 작용의 행보를 추적함으로써 이미 답론 구성을  
향해 진보하고 있었다. 제안한 모델의 가설은 설화의 내기들을 구심  
점으로 삼고서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가치들의 규정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설화의 총체성을 고려하면서 주체들을  
위한 이 가치들의 실현(혹은 비실현)을 경험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의  
대결을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분석을 좀더 진전시키고 또 아마도 가  
설의 몇 가지 면모들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설화적 면에서 텍스트에  
대한 관찰을 다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석가는 행동의  
조직과 행동 안에서의 행위자들의 위상(그들의 역할)을 연구함으로써  
설화적인 면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다.

1) 이야기는 주인의 판단으로 그 말문을 열고 있으니, 이 판단은  
청지기를 비준하고 주인과의 결별을 원하고 있다. 주인과 청지기는  
차이가 나는 프로그램들의 대표자들이지만 그들의 프로그램에서 동일  
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청지기는 이미 실현

된 한 실행(청지기 노릇)의 작용 주체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그 실행을 평가하는 발신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일을 청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또 한번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조종의 발신자(청지기로 하여금 하게 하다)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청지기는 장차 있을 실행의 작용 주체이고, 또한 이 실행은 텍스트의 5~7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2) 어떤 사람 이야기는 주인의 새로운 판단으로 끝을 맺고 있으나 이번의 판단은 매우 적극적이다(그러나 주인이 청지기를 다시 고용했다는 말이 없다). 이제 주인과 청지기는 동일한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다시 화합하여 낭비에 대립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여기서도 청지기는 실현된 실행(주인의 빛에 대한 처리)의 작용 주체이고 또 주인은 청지기의 실행을 평가하는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어떤 사람 사람들은 프로그램(3~7절)의 적극적인 실현 안에서 행위자들의 위상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자는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일을 떠려 하니 어떻게 할까? 여기서 청지기는 자기 자신에게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활동들에 대한 이 분배는 청지기의 권능의 요소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가) 능력-행위: 청지기에게는 땅을 파는 능력-행위가 결핍되어 있다.

나) 의지-행위: 청지기에게는 빌어먹을 의지-행위가 결핍되어 있다. 독자는 여기서 창피의 형상에 유의해야 한다. 창피하구나라는 청지기의 말은 거지 노릇에 대한 청지기의 부정적인 인식(비준)의 입장을 밝혀준다. 그러나 그의 이 인식은 사회적 가치들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다) 지식-행위: 텍스트는 결국 권능의 요소(옳지, 내가 할 것을 알았

다)를 선발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의 민첩함을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를 비준하고 있다. 주체가 권능을 취득한 이상 이제 실행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의 배치는 언제나 중대하다.

라) 드러난 권능의 요소들은 힘·제약·결단력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작용 주체적 타입의 특성들이다. 이 특성들은 이렇게 하여 한 설화의 주인공을 수식할 수가 있다.'

마) (아직은 기능적이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예견은 설화 안에서 초점이 되는 가치들의 어떤 형상들을 그 목적성들에 따라 밝히고 있다. 여기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환대의 형상을 미리 설정하고 있다. 독자는 이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어떻게 그 가치가 해석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독자는 청지기의 실행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맞아들이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을 관찰하게 된다. 이 행위는 청지기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발신자로 역할을 하게 하는 사역-행위 *faire-faire*인 것이다. 따라서 설화 순차 *séquence*에서 청지기의 활동은 조종에 해당된다.

그러나 독자는 설화가 그전에 청지기였던 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영접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주인의 적극적인 비준은 영접의 사실 이전에 이미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내기는 주인의 채무자들에 대한 청지기의 조종을 통해 실제적인 영접 이전에 이미 문제의 해결(해고당할 위험)을 보았다는 것에 있다.

4) 청지기의 실행에 대한 분석은 주인 청지기 채무자들 각자의 역할들을 제자리에 배치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는 이미 이 설화 순차의 특징적인 몇 가지 요소들을 들추어냈으니, 이 요소들을 설화적 틀 안에서 다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가) 청지기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빚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빛 문서에 액수를 써넣게 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그는 채무자들에 대한 조종을 통해 위임된 발신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청지기는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주인의 빛에 대한 보고를 하라는 것은 주인에 의해 청지기에게 강요된 실행(청지기 일을 청산하기)에 상응하고 있다.

나) 그러나 말하여진 빛과 씌어진 빛 사이의 편차를 통해 또 다른 한 타입의 객체(영점·인정)가 나타나고 있는데,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로부터 이 객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조종의 발신자인 청지기는 동시에 객체-가치(영점)의 수혜자가 된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과 동등한 설화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다) 청지기의 작용 덕분에 객체-가치의 이중화가 발생한다. 그 하나는 '회계상'의 객체-가치로서 주인이 그 프로그램을 설정한 바대로 주인에게 귀속될 수가 있다. 그 다른 하나는 '영점'의 객체-가치로서 청지기가 희망한 바대로 청지기에게 귀속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비유가 이 새로운 이익을 청지기에게 귀속시키기에 앞서, 또 주인에 의한 청지기의 재고용에 대한 언급도 없이, 단지 주인의 적극적인 비준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야기의 내기로 선정된 실제적인 실행은 객체-가치의 이중화가 아닐 수가 없다. 이 이중화는 그전에 청지기에 게 비난한 재산 낭비에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독자는 비준의 형상으로서 객체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영웅 주역(主役)을 수식하는 술기로운 민첩성 *savoir-faire* (지식·행위)의 인정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설화적 분석은 행동 안에서 행위자들의 위치를 밝혀줌으로써, 주인의 역할과 청지기의 역할간에 발생하는 동일시(同一視)의 현상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종국적으로 주인과 청지기의 위상은 서로 부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 8. 설문지의 제안

지금까지의 분석 사례는 대표적인 본보기로서의 한 실례가 아니다. 이 사례는 단지 어느 독특한 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의 행보에 관한 단계들을 밝히려 시도했을 뿐이다. 이 단계들은 행위자들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하여, 의미 작용의 조직에 관한 모델의 제안에 이르는 과정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행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석가는 텍스트에게 상당수의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응답들은 적절한 정보들, 다시 말해 분석의 단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분석 그 자체가 곧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의 집합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제공된 정보들은 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분석가가 생각해낸 총체적인 가설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평가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가설은 언제나 의미 작용의 요소들 사이에서 한 논리적인 분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분절은 텍스트에게 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이 틀 안에서 텍스트의 형상들은 분류되고 비교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틀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 형상들은 자기네의 가치를 소유하게 된다.

독자는 이 같은 독서 작업을 하기 위해 곧 잇달아오는 설문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설문지는 3~4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자들로 구성된 여러 성서 독서 모임의 체험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 Ⅰ. 설문지의 사용법

이 설문지는 텍스트에 던질 질문들의 집합체를 소개하고 있으나, 텍스트들에 따라 모든 질문이 동일하게 적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저러한 면모가 사람들이 읽고 있는 텍스트에 의해 다

양하게 표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지는 적어도 텍스트의 유의미적인 초점에 독자의 관심을 끌게 하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설문지는 답론적 타입의 질문들과 설화적 타입의 질문들을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주의깊은 독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어떤 텍스트들을 위해서는 답론 분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좋고, 또 어떤 텍스트들을 위해서는(이야기의 형태를 취하는 텍스트들) 설화적 접근법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본 분석의 실천은 설화적 타입의 유의 사항과 답론적 타입의 유의 사항이 혼동되는 일이 없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설화 접근에서 행위자들간의 대립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는 자연적으로 이 행위자들 *acteurs*이 표상하는 형상들을 헤아려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 형상들 간의 편차도 분석해보아야 한다. 흔히 한편으로는 행역자(行役者) *actants*적 역할들(설화적 수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형상적 행보들(답론적 수준)간의 관계가 의미 작용의 행보와 주제적 역할들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설문지는 텍스트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서 모임의 작업을 돕고 있고, 또한 분석이 어디에까지 와 있으며 이미 관찰한 것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아직도 찾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 설문지는 텍스트에 관한 관찰을 좀더 엄격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하는 데에 유익하다.

만일 독자가 원한다면, 계획한 분석 작업의 기술적인 수준에 따라, 좀더 높은 전문적인 차원에서 질문들의 양식을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Ⅱ. 설문지

1) 담론 분석에 접근하기 위하여

(1) 텍스트의 '담론 상황들' situations discursives 의 한계를 정하라.

(기호학은 하나 혹은 여러 명의 행위자들이 공간과 시간의 독특한 상황 속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담론 상황이라 부른다. 연극에서 여러 개의 장면들이 막과 장에 따라 전환하는 현상을 참조할 것).

행위자·시간·공간 상의 매번마다의 변경은 새로운 담론 상황(장면)을 결정할 것이다.

(2) 매번마다의 담론 상황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를 밝혀라.

가) 분석가는 텍스트가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상적 규정들 *déterminations figuratives*' 을 노트하라.

나) 분석가는 행위자들간에 유지되고 있는 관계들을 노트하고, 또 어떻게 그 관계들이 텍스트에 의해서 지칭되고 있는가를 살펴라.

다) 분석가는 행위자들이 '공간' 과 맺는 관계들을 노트하라.

라) 분석가는 행위자들이 '시간' 과 맺는 관계들을 노트하라.

마) 이제 분석가는 각 담론 상황을 위해서 어떤 대장(臺帳)들(가령 경제적·감정적·종교적 등의 대장 혹은 범주) 위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 설화 순차(장면, séquence)에서 또 다른 하나의 설화 순차로 옮겨가면서

가) 장면이 갈리어 바뀔 때마다 행위자들(질문 2 참조)의 정의와 지칭에 있어서 변형 *transformation* 이 발생하는가?

나) 형상적인 면과 주제적인 면에서 볼 때(관계들의 변형·형상들 간의 대립), 내용의 조직 안에서 변형이 발생하는가?

다) 어떻게 텍스트는 의미 작용의 행보를 선정하며, 또 이 행보는 담론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라) 분석가는 텍스트의 총체가 그 중심으로 하여 전개시키는바 내  
기의 초점을 정의할 수 있는가?

## 2) 설화 분석에 접근하기 위하여

### (1) 행동들

가) 어떤 행동들이 그 결말에 이르는가(혹은 이르지 못하는가)?

나) 누가 그 행동들을 성취시키는가? 누구(혹은 무엇)의 덕분으로  
그 행동들이 성취되었는가?

다) 행위자들 간의 동맹들이 의지, 지식 혹은 능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 (2) 대립들

이 행동들은 행위자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는가? 어떤 행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대립들이 의지·지식·능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 (3) 목적성들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이 행동들이 이루어졌는가? 이러저러한 행  
동들은 무엇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가) 권능이 관련되어 있는가? 능력-행위, 지식-행위가 문제인가?

나) 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있는가? 객체-가치가 문제인가?

다) 인정(認定)이 관련되어 있는가? 객체-메시지, 행위자들과 행동  
들의 가치에 대한 지식과 진리가 문제인가?

### (4) 가치들

이러한 행동들의 가치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그 가치  
들을 나타내주고 있는가? 행위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텍스트는 이 관점들을 분절시키고 있  
는가?

누가 주된 행동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이 가치는 어떠한가?

대립자들은 어떤 가치를 증진시키려고 하는가?

(5) 프로그램 — 반(反)프로그램

분석가는 이 질문들과(또 답변들)의 총체를 다시 취급하면서 한 프로그램과 또 다른 한 프로그램간에 대립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들상에서 행위자들의 기능들은 어떠한가?

분석가는 각 행위자의 설화적 행보를 구축할 수 있는가?

(6) 내기

어떻게 프로그램/반프로그램의 분절이 담론적 질문들의 끝에서 밝혀진 내기 enjeu 를 다시 취급하고 있는가?

[대구효성카톨릭대 종교학과 교수]